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가나안 정벌 I

### (여호수아 10:16~12:24)

이종윤 원로목사

여호수아 10장 중반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여리고 성, 아이 성, 그리고 기브온 언덕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을 포함한 아모리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 자기들의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해 왔다. 이때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원병을 요청했다.

#### I. 남방 정벌

기브온 언덕에서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에 나선다.

#### 1.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정신을 발휘한 장군이다(7절)

장군을 영어로 general이라고 한다. 장군은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 통달해야 하는데 특히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원만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 비록 자기들을 속였지만 약속한 바를 지키고, 그들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고 도와주었다.

#### 2.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돕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10:8), 원수를 큰 우박 재앙으로 죽이셨으며(10:11),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10:12).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다.

#### 3.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숨은 다섯 왕을 잡아 내어 죽였다

여호수아는 해 지기 전까지 그 시체들을 나무에 달아 두었다가 해진 후 끌어내어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져 돌로 막았다. 이 같은 처사는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정복 행위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이와 같이 잔인하게 대해야 한다.

- 우리의 정욕과 악한 생각을 대적하되 우리 옛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한다.

- 아모리 다섯 왕이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듯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죄악이 숨어 있다. 이를 끌어내어 소탕해야 한다.

- 다섯 왕의 세력이 여호수아 앞에서 무력해지듯 우리의 정욕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침략전도 방위전도 아니다. 그것은 성전(聖戰)이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항하는 것이니 만큼 여호수아는 여러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되 그들의 모든 근거조차 없앴다. 이처럼 성도는 죄의 뿌리까지 뽑아 없애야 한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10:30, 32, 40, 42).

#### 4.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번 승리를 거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10:42).

#### II. 북방 정벌

가나안 땅의 북방에 있는 왕들은 남쪽에 있는 왕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듣고 동맹군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 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울 것이 없다. 성도의 담력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생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3-4). Athanasius는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주장하다가 20년 간 망명 생활을 했다. 그는 주님의 힘으로 담력을 얻어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가? 내가 온 세상을 대적하리라”고 외쳤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 2. 여호수아가 북방 나라들을 정벌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었다

첫째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전투에 임했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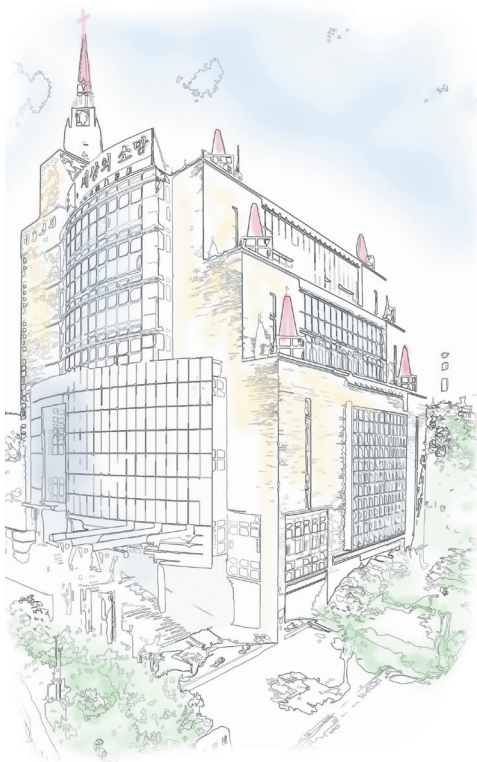
둘째, 그들은 선제 공격(졸지에 습격)을 했다(11:7).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해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 죄 문제만큼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죄에게 패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승전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11:9).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셨다(11:6). 그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11:15)

남에게 잘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잘 배운 자이며, 남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자신이 진리에 잘 순종하는 자이다.



# 다음 주 찬양예배 후 세례식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다음 주 찬양예배시 2018년 세번째 세례식이 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달(격월)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 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2018년 6월 세례식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 진종훈·문영희 김광태·최종희 박동식·유하영 박미현2
- 최명남·김지은 박광서·백경화 김현정 최낙준 채혜숙
- 윤준섭 오후근 하극수·조영자 조정옥·홍동기·홍석현
- 노영환·홍은경 이미리·김태욱 이미경·서영림 김정애
- 안재선 박미라 유영경 김영숙 박정신·김남순 노제현
- 김승록·전미경 김명숙 손순형 한상욱 유성택·전진순
- 김숙자 김희순 박종만 한상욱 임라임 김정열 박충구
- 양옥자 이순례 송정윤 박한욱 김소형 구진영 박연옥
- 김하나 길이세·최진경 임송자 김철수·김서윤 최익진
- 박원서 민순규 송인현 박문옥 조원영 유덕자 최아영
- 김형택 임경락·김해중 박찬성·심명숙 이은희 정복순
- 윤종현1 임우택·김정숙 유은철·조현정 임대훈 옥희숙
- 최원석·박길희 임종태 최축희 신모란 신금전 이명아
- 서문석·한춘홍 정치은·김영현 오정수 오광환 오명길
- 류충기 김희진 박병욱 오 은 광태수 정완진 위성남
- 양춘경·이인숙 김희정 김은석 박해옥 조혜영 이정자
- 신문식·전희정 최세정 허경화 최미경 문분순 한은미
- 최현인 송인권 리브가여전도회 무명 9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2018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은혜 중에 마칩니다

2018 여름 수련회·여름성경학교가 지난 주 15일 청년1·2부 연합 수련회(청년1부 회장:조재석 성도, 청년2부 회장 : 임종현 집사)를 마지막으로 교회학교별 모든 일정이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와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신경써 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2018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 김진달 집사(에바다부 부장)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어느 해 보다 무더운 폭염 가운데 에바다부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란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1부는 예배를 드렸고 2부는 서울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에바다부를 위한 기도회를 했고 3부는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깊이 아는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서명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9절 본문으로 "가나안을 향하여"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중 농아인 부서가 처음 개설될 때 단 1명의 성도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은 단순한 숫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숫자에 따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친 환란은 서울교회 자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더 해결이 어려워졌지만 서울교회로 더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믿고 고난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시련과 맞서고 있지만, 세상적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어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서울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에바다부 수련회로 마치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미, 영광 돌립니다.





2018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김지석(중등부)

중·고등부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아가페 타운으로 여름수련회를 갔습니다. 'You are my peopl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아가페 타운으로 이동하면서 옆자리 친구, 선배 또는 후배와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신대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찬양도 해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도와 주신 덕분에 더 활기차고 즐거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출애굽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몰랐던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단순히 모세의 여러 기적과 십계명만이 아닌 구약시대 율법이 만들어진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다시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더라도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 보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각 조마다 성극을 하나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5개로 나눠 성극을 만들었는데 읽기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기

다나 찬양, 성경 봉독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광야에서 헤매듯이 불확실하다 해도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곁에 있어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과 같이 더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하다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애라 (고등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등부의 임원으로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저번과는 어떠한 면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좋아하고 유익한 수련회가 될지, 찬양팀의 멤버로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친구들이 단순히 찬양팀을 무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사가 직접 마음에 와 닿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지 또, 처음으로 수련회에 외부 찬양팀 세션들을 부르겠다고 하여 그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컸지만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2박 3일간 출애굽기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41장이라는 많은 장 수의 내용이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과 길어서 정리 되지 않았



던 것들이 전도사님의 맞춤 설교로 전보다 훨씬 이해가 수월해졌고 출애굽기 속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별로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성극을 준비하고 한 번 더 쉽게 풀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주일예배 때에 저는 예배 반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오늘 부를 찬양을 보면 코드를 보고 반주를 맞추는 것에 바빠 가사도, 때로는 제목조차 흘러 듣고 코드와 음표에만 집중하곤 했습니다. 장신대학교 찬양팀 동아리 분들을 통해 신앙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저와 비슷한 면에 계셨었고 본 받고 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반주를 하면서도, 찬양팀을 섬기면서 저희 찬씨와 NLC가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았고 이후로는 주일 말씀을 미리 전 주에 읽고 묵상하며 찬양과 연결 시키고 한 주간 가사를



묵상하며 살고 아침에는 그것에 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전날부터 일어나기 힘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아졌지만 수련회에 있는 동안 찬양할 때에만 목소리가 나오고 거짓말 같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있을 수 있었고 이번 수련회 이후에는 전과 다름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를 위해 일을 하시고 살아 계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술 고등학교를 다니며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더욱 앞으로의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고 일상생활에 있어도 하나씩 제가 바라보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있어 가장 은혜로웠고 느낀 바가 많은 수련회였습니다.





김신영 (청년부)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아가페타운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강의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들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목사님께 들은 수련회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잠깐 쉬는 약수터 처럼, 힘든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추어 서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편하게 들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수련회를 시작하자 마음이 매우 편해졌습니다. 설교와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은 지

쳐있었을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 무거운 짐을 나눠 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이제 나를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동역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 새벽기도에 모여서 곧 있을 수련회를 생각하고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났고 마음은 한층 더 든든해졌습니다.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이 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앞에서 그 길 먼저 걸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오늘도 담대히 나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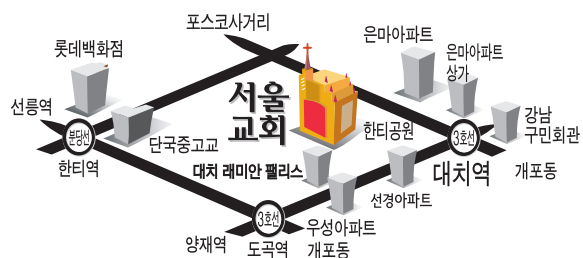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19일	주일	렘 25-28		삼하 14-19	
8월20일	월	렘 29-31		삼하 20-24	
8월21일	화	렘 32-33		왕상 1-4	
8월22일	수	렘 34-37		왕상 5-8	
8월23일	목	렘 38-41		왕상 9-13	
8월24일	금	렘 42-46		왕상 14-18	
8월25일	토	렘 47-49		왕상 19-22, 왕하 1-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동 정



■ 연주회 : 8교구 장운식 집사 『2018 장운식 기타 리사이틀: 줄리아니의 밤』 8월 23일 (목) 저녁 7시 15분 성암아트홀(논현동)

■ 금주의 식사: 불고기덮밥  
시무장으로 일동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와 기도회에 열심을 다하여 참석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에 합심하게 하옵소서.
2.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